

2019년 3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혼조 마감 블룸버그,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일부 사안 철회할 수 있다” 보도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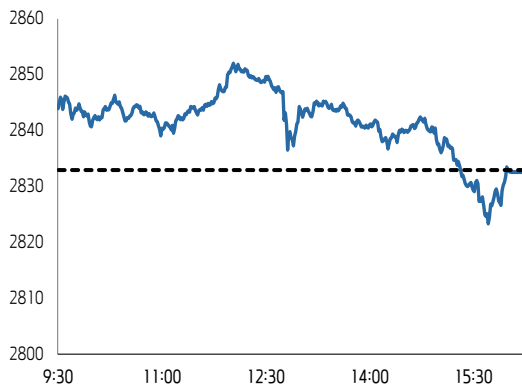
미 증시는 유로존 경기 바닥론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가운데 AMD 와 NVIDIA 가 알파벳과 아마존 효과로 강세를 보이는 등 기술주가 상승 주도. 다만, 장중에 보도된 ‘미·중 무역협상’ 관련 엇갈린 보도 여파로 상승과 매물출회가 이어진 후 장 막판 혼조 마감(다우 -0.10%, 나스닥 +0.12%, S&P500 -0.01%, 러셀 2000 -0.57%)

미 증시는 기술주 강세, 미·중 무역협상, 유로존 경기 바닥론 영향을 받아 변화. 장 초반 미 증시 상승 요인은 유럽 경기 낙관론. 이날 발표된 독일의 3 월 ZEW 경제심리지수(-13.4→-3.6)를 비롯해 영국의 실업률이 1975 년 이래 가장 낮은 3.9%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로 유로존 경기 바닥론이 유입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

한편, 기술주 강세 요인을 살펴보면, 구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MD(+11.83%)가 구글 스트리밍 비디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AMD 와 구글이 ‘Project Stream’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중인데 이날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 AMD 게임 칩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 한편, NVIDIA(+4.00%)는 아마존(+1.13%)이 자사의 T4 데이터센터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4% 상승하는 등 기술주 강세

미·중 무역협상 관련 내용도 시장에 영향.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주장한 가운데 Wsj 은 “협상은 막바지 단계이며 4 월 말까지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라고 보도. 더불어 다음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 류허 부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도 언급. 반면,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일부 사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도.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일부 약속을 철회해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언급. 이러한 무역협상 관련 엇갈린 보도 내용이 미 증시를 변화 요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77.62	-0.09	홍콩항셱		29,466.28	+0.19
KOSDAQ		748.91	-0.56	영국		7,324.00	+0.34
DOW		25,887.38	-0.10	독일		11,788.41	+1.13
NASDAQ		7,723.95	+0.12	프랑스		5,425.90	+0.24
S&P 500		2,832.57	-0.01	스페인		9,492.30	+0.88
상하이종합		3,090.98	-0.18	그리스		714.44	-1.51
일본		21,566.85	-0.08	이탈리아		21,430.35	+0.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바이오 강세

NVIDIA(+4.00%)는 아마존(+1.13%)이 자사의 T4 데이터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AMD(+11.83%)는 알파벳(+1.17%)의 구글이 스트리밍 게임 관련 데이터 센터에 자사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급등 했다. 이에 힘입어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론(+1.92%), 브로드컴(+1.86%)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엘러간(+2.16%)이 소아환자 항암제인 Avycaz의 확장 사용을 FDA가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이와 함께 전일 하락세를 보였던 J&J(+0.93%), 화이자(+1.17%) 등 제약업종과 길리어드사이언스(+0.72%) 등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21세기 폭스(-3.26%)는 자사의 엔터 사업을 디즈니(-2.76%)로 넘기는 등 기업분할 이후 첫 거래일에서 하락 했다. 물류회사인 UPS(-0.31%)는 루프 캐피탈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buy→hold) 한 여파로 하락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0.54%)는 실적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시간 외로 5% 넘게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8%	대형 가치주 ETF(IVE)	-0.19%
에너지섹터 ETF(OIH)	-0.46%	중형 가치주 ETF(IWS)	-0.49%
소매업체 ETF(XRT)	-0.40%	소형 가치주 ETF(IWN)	-0.92%
금융섹터 ETF(XLF)	-0.78%	대형 성장주 ETF(VUG)	+0.20%
기술섹터 ETF(XLK)	+0.20%	중형 성장주 ETF(IWP)	+0.1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3%	소형 성장주 ETF(IWO)	-0.18%
인터넷업체 ETF(FDN)	+0.35%	배당주 ETF(DVY)	-0.79%
리츠업체 ETF(XLRE)	-0.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2%
주택건설업체 ETF(XHB)	-1.0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3%
바이오섹터 ETF(IBB)	-0.06%	미국 국채 ETF(IEF)	-0.07%
헬스케어 ETF(XLV)	+0.79%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24%	물가연동채 ETF(TIP)	-0.09%
반도체 ETF(SMH)	+1.15%	Long/short ETF(BTAL)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0.15	-0.29%	+2.17%	+0.58%
소재	347.38	-0.15%	-0.06%	+1.16%
산업재	627.14	-0.41%	+0.77%	-1.30%
경기소비재	888.26	+0.50%	+2.35%	+2.20%
필수소비재	567.99	-0.12%	+1.07%	+1.19%
헬스케어	1,072.17	+0.78%	+1.98%	+0.11%
금융	443.66	-0.76%	+2.04%	+1.16%
IT	1,289.45	+0.20%	+2.74%	+5.69%
커뮤니케이션	157.25	-0.03%	-0.96%	+2.28%
유틸리티	290.73	-1.18%	-1.11%	+2.66%
부동산	218.37	-0.29%	-0.65%	+0.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출회 우려 높아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는 0.23%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05%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734 계약)에 힘입어 0.20pt 상승한 280.7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9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혼조 마감했다. 장 초반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인 유로존 경기 바닥론과 반도체 업종 강세, 그리고 4월말 무역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 후반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일부 사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금융시장은 관련 소식이 보도된 이후 신흥국 환율 약세, 국제유가 하락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비둘기적인 내용이 예상되는 FOMC를 앞두고 있어 미 증시는 혼조 마감에 그쳤지만, 관련 이슈 또한 지난 1월 FOMC를 통해 일정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립이하 이슈로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 장 마감 후 물류회사인 페덱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이후 시간 외로 5% 넘게 하락한 점도 부정적이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4% 상승한 점을 감안 조정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영국 경제지표 개선

1월 미국 공장 수주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달 발표치(mom +0.1%)와는 변화가 없었으나, 예상치(mom 0.0%)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운송을 제외한 공장 수주는 0.2% 감소했다.

3월 독일 ZEW 경기심리지수는 지난달 발표치(-13.4)나 예상치(-11.0)보다 양호한 -3.6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경기동향 지수는 11.1로 예상치(11.7)를 하회했다.

1월 영국 실업률은 3.9%로 197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안정이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소득지수는 3.4% 상승하는 등 임금 또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무역협상 불확실성 불거지며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OPEC 의 6 월말까지 감산 기간 연장 소식이 이어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장 초반 유럽 경기 낙관론, 장중 유입된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일부 사안을 철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발표되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매물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락 전환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 및 파운드화가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약세폭은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호주달러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유럽 경제지표 개선으로 '유럽 경제 낙관론'이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다. 특히 FOMC 를 앞두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장중에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4 월말까지 합의를 볼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으나, 장 후반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일부 사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분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금은 비둘기적 FOMC 와 달러 약세,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하락 했으나 철근은 0.0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03	-0.10	+3.80	Dollar Index	96.378	-0.15	-0.57
브렌트유	67.61	+0.10	+1.41	EUR/USD	1.1353	+0.14	+0.58
금	1,306.50	+0.38	+0.65	USD/JPY	111.4	-0.03	+0.04
은	15.372	+0.33	-0.27	GBP/USD	1.3271	+0.12	+1.50
알루미늄	1,946.00	+1.33	+3.90	USD/CHF	0.999	-0.24	-0.86
전기동	6,459.00	+0.53	-0.20	AUD/USD	0.7088	-0.23	+0.08
아연	2,818.00	+1.33	-0.70	USD/CAD	1.3321	-0.10	-0.25
옥수수	371.25	-0.07	+1.50	USD/BRL	3.7898	-0.05	-0.55
밀	456.50	-0.05	+0.77	USD/CNH	6.7163	-0.07	+0.14
대두	904.00	-0.19	+0.78	USD/KRW	1130.60	-0.13	+0.07
커피	96.65	-0.21	+0.68	USD/KRW NDF1M	1129.90	-0.10	+0.2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14	+1.08	+1.26	스페인	1.169	+1.50	+0.30
한국	1.980	-1.70	-0.50	포르투갈	1.297	+3.90	-3.50
일본	-0.040	-0.50	-1.20	그리스	3.743	+1.20	-12.80
독일	0.097	+1.40	+4.20	이탈리아	2.492	+3.90	-4.60